

# 외국인 근로자들 '금호월드' 몰린다

### 중고 휴대전화·귀금속·밥솥 등 귀국 선물로 구입 통역 고용·만남의 광장 마련 '모시기'...매출 2배 ↑

“중고 휴대전화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효자 상품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광주시 서구 금호월드에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휴대전화를 전문적으로 파는 상가 주변에는 밀려드는 외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신형과 중고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인기를 끌면서 금호월드는 물려드는 이들을 위해 통역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인근의 컴퓨터 전문매장과 귀금속 매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삼삼오오 짝을 이루 찾아 온 외국인 근로자들로 북새통을 이

뤘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광주 곳곳에서 휴대전화와 귀금속을 사들이면서 관련 업종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고국에 선물로 보내거나 직접 가져갔을 때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 가전을 대량 구매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덕분에 벌어진 일이다.

21일 금호월드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매출이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해 최근에는 2배가량 급증했다. 고향 친지에게 선물하거나 귀국 전 다량으로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는 근로자들이 많아져 덩달아 매출이 늘고 있다.

인기 품목은 휴대전화와 밥솥, 귀금속, 노트북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국내 분실 핸드폰이 해외 밀반출돼 거래될 정도로 국내에서 출시되거나 유통되는 제품의 인기가 높아 직접 중고나 신상품을 가져가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내 세관의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대량 구입하는 일도 잦아 최근 금호월드 일부 상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을 고용

해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현재 2개 상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주말과 휴일 단기 통역아르바이트를 채용했다.

쌀을 소비하는 아시아 국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밥솥도 큰 인기다. 선물로 보내거나 귀국 필수품으로 밥솥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 덩달아 소형 가전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일부 동남아 국가의 경우 금 세공 기술이 떨어져 디자인이 뛰어난 한국 제품을 애타워 구매하고 있다. 금호월드 관계자는 “국내 귀금속 디자인이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고, 금 함량도 99.5%미만인 국가가 많아 99.9%에 달하는 국내 금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국가에서 인기인 국내 금 제품을 사들이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귀금속 상가도 때마침 호황을 누리고 있다.

노트북도 이들에게 빠지지 않는 인기 상품 품목이다. 신학기가 겹친 이유도 있지만 찾는 외국인이 많아 노트북 판매도 크게 늘었다. 소형 가전과 노트북의 경우 포장을 뜯지 않는 경우 아시아지역에서 웃돈을 얹어 되팔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도 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방문이 늘자 금호월드는 최근 1층과 2층에 이들을 위한 66㎡ 규모의 만남의 장소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금호월드 관계자는 “금호월드에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드는 것은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하남·평동공단 등지와 교통편이 편하기 때문이다”며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어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는 등 손님 모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구입하는 다량의 핸드폰이나 밥솥, 노트북에 대해 세관 상의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본부세관 문석일 관세행정관은 “과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의 경우 출국 과정에 국내 세관에서 별다른 제재는 없지만 귀국 과정에서 해외에서 적발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구입하는 다량의 핸드폰이나 밥솥, 노트북에 대해 세관 상의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본부세관 문석일 관세행정관은 “과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의 경우 출국 과정에 국내 세관에서 별다른 제재는 없지만 귀국 과정에서 해외에서 적발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89.76 (-2.36)	금리 (국고채 3년) 1.50% (0.00)
↓ 코스닥 692.42 (-2.60)	↑ 환율 (USD) 1163.50원 (+1.00)

## '070' 햇살론 대출 전화 사기 조심

### 신보재단 “전화로 권유 안해...보이스피싱 확률 높다”

최근 070 번호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로 햇살론을 안내하며 대출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햇살론은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전용 대출상품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분 체 등에서 연 30%에 가까운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 안팎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다.

하지만 요즘 이 햇살론을 빙자해 전화 영업을 하는 사례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즘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대출 상품을 안내한다고 말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려는 보이스 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햇살론이라는 이름만 듣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니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전

혀 다르다. 정부의 햇살론 정책을 수행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먼저 전화를 걸어 햇살론을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농협이나 신협, 저축은행 등에 찾아가서 상담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다른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거나, 대출을 받기 전에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을 위해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건넬 때 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만약 대출사기범에 속아 돈을 보냈을 때는 즉시 112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사흘 안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해당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 담양백동2 국민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건기)는 담양백동2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6㎡형 561만원, 8만6000원(최대 전환보증금 1061만원, 월임대료 6만1000원) ▲36㎡형 790만원, 13만1000원(최대 전환보증금 1890만원, 7만6000원) ▲46㎡형 1718만원, 16만9000원(최대 전환보증금 3018만원, 10만4000원)으로 저렴하다. 전용면적 26㎡ 150세대, 36㎡ 138세대, 46㎡ 172세대 규모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3월21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337만1660원 이하 ▲4인 가구는 377만520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83만2780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자산은 각각 1억2600만원,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담양문화회관에서 4월 5일부터 6일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20일, 계약체결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다. 문의 1600-1004. /김대성기자 bigkim@



오비맥주는 22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임직원들이 전사적으로 물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난해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만원의 행복, 물 사랑 걷기(Walk for Water)' 행사를 마친 오비 임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비맥주 제공>

## 오비맥주, 물 절약 아이디어 공모 '세계 물의 날' 물 사랑 캠페인

오비맥주(대표 김도훈)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임직원들이 생명의 근원이지 맥주의 핵심 원료인 물을 지키기 위해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실시한다.

오비맥주는이전, 광주, 청주에 위치한 3개 공장에서공장별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물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갖고 우수 제안자를 포상할 예정이다. 또 각 공장 주변지자체와 연계해 하천둔지정화작업

과 하수처리 개선활동을 벌이는 등 세계 물의 날을 기점으로 연중 물 사랑캠페인을 지속한다.

또 본사 직원들은 4월부터 연말까지 개발도상국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동안 걷는 평균 거리인 6km를 직접 체험하고 참석자들의 숫자만큼 기금을 적립해 물 부족 국가에 기부하는 자선 행사인 '만원의 행복, 물 사랑 걷기(Walk for Water)' 캠페인도 시작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맥주의 핵심 원료이자 건강의 필수 요소인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환경보전을 핵심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기업으로서물사랑에 앞장서는 등더 나은 세상(Better World)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금융민원, 보험 증가·은행 카드 감소

### 광주·전남 손보 민원 지난해 1025건...전년비 24% 늘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광주·전남지역 금융민원의 경우 보험 분야는 증가한 반면 은행이나 신용카드 관련 비은행 민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원에서 처리한 민원은 모두 2536건으로 전년도 256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은행이 291건, 비은행 459건, 보험 1760건, 금융투자 26건 등으로 보험민원이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특히 은행·비은행 민원은 전년 대비 각각 17.1%, 22.9% 감소했지만, 보험민원은 10.4% 증가했다.

보험민원 중에서도 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2014년 826건에서 지난해 1025건으로 199건(24.1%)나 늘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계약의 성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산정 관련 민원이 많이 증가했다.

이는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대폭 인상,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 계약 취소 요청 증가와 광주전남지역의 높은 손해율·보

험사기 혐의 병행 증가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도 이 지역 손해보험 민원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은행·비은행 민원은 750건으로 전년 대비 196건(20.7%)이 줄어들었는데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경제여건 변화로 민원 발생 비중이 큰 여신 관련 민원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카드 등의 비은행 민원은 459건으로 전년대비 136건(29.9%)이 감소했으며 이는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나 이용 한도를 합리화하면서 감소했다. 반면 단순 금융상담은 지난해 1426건을 실시해 전년 35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회사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상담(1332),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민원센터), FAX(02-3145-8548),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으로 민원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문한옥을 집목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이 단열성 시카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뒤틀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승학우정 (주) 061-461-1800 H. 010-3631-0372

##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신D 대신프리모 남가발